

제주대신문

1954년 5월 27일 창간 (주간) news.jejunu.ac.kr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3년 11월 6일 수요일 제903호

제9대 총장 공모에 5명 교수 지원

오는 13일 최종 후보 2인 선정해 교육부 통보



고영철 교수 김두철 교수 김종훈 교수 양영철 교수 허향진 교수

오는 13일 치러질 제주대학교 제9대 총장선거에 모두 5명의 교수가 공모지원했다.

지원자(가나다순)는 △고영철 사회과학대학 언론홍보학과 교수 △김두철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교수 △김종훈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수 △양영철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허향진 관광경영학과 교수 등이다.

공모위원회는 신청자들의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지난 4일 서류 보정기간을 거쳤고, 입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의했다. 자료 공개열람은 6일부터 13일까지 이뤄진다.

오는 12일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 구성을 위한 투표와 추천이 이뤄지며 13일 오전 9시부터 추천위 선정을 위한 개표가 이뤄진다.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수는 학내 36명, 학외 12명 등 48명이다. 학내는 교원 31명(여성 4명), 직원 4명(여성 1명), 학생 1명이다. 학외는 평의회 추천 5명(여성 2명), 공무원직장협의회·총장창·기성회이사회 추천 각 2명(여성 1명), 총학생회 추천 1명이다.

추천위 구성이 완료되면 정책토론회, 학동연설회를 개최한 후 오후 5시

께 표결을 통해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한다.

추천위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재직위원 과반수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로 선정한다. 재직위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3명에 대해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차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3차 결선투표를 통해 다득표자 1, 2위로 선정된 2명을 교육부에 통보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차기 총장을 임명한다.

각 후보들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으며, 선거일 전날인 12일 자정까지 유무선 전화와 홈페이지, 이메일, SNS 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공모위원회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흡보를 배부 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게 된다. 그러나 개별 연구실 방문은 금지된다.

총장 공모지원자 홈페이지

△고영철 언론홍보학과 교수 blog.naver.com/53ycko
△김두철 물리학과 교수 www.kimduchul.kr
△김종훈 영어교육과 교수 www.dynamichoon.co.kr
△양영철 행정학과 교수 blog.naver.com/yycdragon
△허향진 관광경영학과 교수 hhj.jejunu.ac.kr

4인 지원자 “허향진 사퇴” 촉구에 추관위 ‘경고’ 조치

회견내용 ‘규정위반’ 판단

총장임용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치완 이하 추관위)는 제9대 총장공모지원자로 등록한 고영철, 김두철, 김종훈, 양영철 교수 등에 대해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추관위는 지난 31일 총장공모지원자 4명의 기자회견 내용은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및 동 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흥보행위의 범위를 넘어서선 것으로, 규정 제13조 1항 제3호(타인이 총장임용후보자가 되지 않아야 함을 청탁, 강요하는 등의 행위)와 제4호(허위 사실 유포 및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추관위는 지난달 10일 제9대 총장임용후보자 공모 공고 및 접수 개시일 이전에 공모지원자격 등을 포함한 선정 규정(제4조, 제5조, 제19조 제6호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확정하고, 위 공고에 따라 공모접수가 완료되고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가 전개되는 시점에서 공모지원자격과 규정을 부정하는 행위는 규정 제13조 1항 7호(기타 공정한 선정 과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고영철, 김두철, 김종훈, 양영철 총장공모지원자는 지난달 31일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허향진 총장이 ‘학무위원 또는 평의장이 총장후보자에 응모하는 경우 총장공모지원자 접수일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총장공모 공고를 어겼고 본인이 도입한 간선제에 후보로 나서서 총장연임을 하려는 것은 도덕적인 면에서 자격이 없다”면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향진 총장공모지원자는 4일 ‘생산적인 정책토론회를 기대합니다’라는 제하의 게시글을 통해 “교직원 78%의 투표와 68%의 찬성으로 총장 직선제 폐지를 수용한 것”이라며 “이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결단이며, 이런 총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돼야지 펼쳐돼서는 안 되는 만큼 총장공모지원자로서 규정에 따라 당당하게 정책을 제시하여 그 자격을 검증받겠다”고 밝혔다.

회 의장이 총장후보자에 응모하는 경우 총장공모지원자 접수일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총장공모 공고를 어겼고 본인이 도입한 간선제에 후보로 나서서 총장연임을 하려는 것은 도덕적인 면에서 자격이 없다”면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향진 총장공모지원자는 4일 ‘생산적인 정책토론회를 기대합니다’라는 제하의 게시글을 통해 “교직원 78%의 투표와 68%의 찬성으로 총장 직선제 폐지를 수용한 것”이라며 “이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결단이며, 이런 총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돼야지 펼쳐돼서는 안 되는 만큼 총장공모지원자로서 규정에 따라 당당하게 정책을 제시하여 그 자격을 검증받겠다”고 밝혔다.



학생회 선거운동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5일 총학생회에 입후보한 <하영Dream·사진 원쪽>과 <진짜>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가 아라캠퍼스 정문에서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학생자치기구 정책토론회는 △총학생회-5일 오후 1시 △총학생회 2차 정책토론회-13일 한라터 시간 미정 △총대의원회 정책토론회-6일 오후 2시 △총여학생회 정책토론회-7일 오후 1시 △동아리연합회-7일 오후 6시 30분에 열린다. 토론회는 총학생회 2차 정책토론회를 제외하고 모두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열린다.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 19일 실시

경상대·자연대는 경선

간호대·교육대는 이달말 등록

과 3)가 출마했다.

경상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을 제외한 8개 단과대학은 단선 입후보했다.

등록 결과 △인문대학= ‘inab!e’ 정

-장상우(국어국문학과 2), 부-한정

훈(사학과 3) △사회과학대학= ‘정

사진’ 정-김대성(언론홍보학과 3),

부-김성은(행정학과 3) △사범대학

= ‘사대공감’ 정-안세현(사회교육과 3), 부-김남규(윤리교육과 2) △생

명자원과학대학= ‘유엔위’ 정-김진

철(분자생명공학전공 3), 부-조상만

(원예환경전공 2) △해양과학대학=

‘위해드림’ 정-강민우(환경공학과 3), 부-정성우(지구해양과학 2) △

공과대학= ‘역시’ 정-김영천(전기공

학과 3), 부-현승탁(전자공학과 3) △수의과대학= ‘비트원’ 정-문태성

멸종위기 뜸부기
제주서 첫 발견

야생동물구조센터,

봄부기 구조해 치료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최근 부상당한 뜸부기(사진) 한마리를 구조했다.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센터장 윤영민)가 부상당한 뜸부기 한 마리를 구조했다. 뜸부기 가 제주에서 실제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조된 뜸부기는 암컷으로 황갈색 얼룩무늬에 몸길이는 약 33cm 정도. 구조 당시 다리 골절 및 극근 손상이 심했으나 수술경과가 좋아 걸어 다닐 정도로 점차 회복단계에 있다.

봄부기는 1970년 이후 개체수가 계속 감소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멸종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컷은 환경부 멸종위기종 2급 및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446호로 지정 보호받고 있다. 2004년 여름 제주시 한경면 습지에서 수컷을 처음 발견된 것은 있지만 제주에서 실제로 나타난 것은 처음이다.

단과대학 순회 교양교육 발전토론회 개최

“교양교육 질적 개선 위해”… 내년 2월까지 마무리

교양교육과정 발전 토론회가 기초 교육원(원장 현승환) 주최로 단과대학을 순회하며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월 27일 인문대학·예술대학원(원장 현승환) 주최로 단과대학 토론회를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토론회는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수립한다.

기초교육원은 “교양교육과정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교양교육에 대한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토론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11월 8일 경상대학 2호관 세미나실 △11월 22일 사회과학대학 2123 강의실 △12월 6일 생명자원과학대학·해양과학대학 장소 미정 △12월 13일 사범대학 장소 미정 △12월 20일 교육대학 장소 미정 △12월 27일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국제교류회관 세미나실3

에듀케이터 교육 참가자 모집

박물관(관장 김동진)이 ‘글로컬 시대 지역박물관 에듀케이터 전문인력 양성교육’ 참가자를 이달 4일부터 5일간 모집한다.

오는 19일부터 4일간 박물관 시정 각실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융복합 문화예술분야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박물관 학예연구실(전화 754-2243)

70억 세계인의 보물섬 제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제주!

제주가 있어 대한민국이 행복해 집니다.

꿈과 낭만, 즐거움이 넘치는 힐링의 섬,

제주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교수시론

김동순
식물환경자원전공 교수

재선충병으로 말라죽어 사라지는 소나무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는 궁극적으로 죽음으로부터 온다고 한다. 기만히 눈을 감고 잠시 자신이 소나무라고 생각해보자. 정말로 감정의 이입이 되었다면, 지금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부르르 떨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도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에이즈는 인간의 탐욕이 낳은 21세기 재앙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사람들이 에이즈의 공포에 떨고 있는가? 보통의 사람이라면 치사율이 100%라는 에이즈를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치사율이 0.1%인 신종플루나, 치사율이 3~4%인 사스(SARS)에 오히려 더 공포를 느낀다.

왜 그럴까? 그것은 자기(또는 사람)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에이즈는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얼마든지 감염을 피할 수 있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병원균의 매개체는 인간 자신이다.

유럽에서 1347년(14세기) 처음 창궐한 흑사병(페스트)은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 당시 유럽인 구의 30%에 해당되는 2500만명이 희생되었다. 자신이 왜 죽는지도 몰랐다. 한참 후에야 쥐벼룩이 흑사병의 원인이 되는 예르시니아 페스티스(Yersinia pestis)를 매개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외부와 모든 접촉을 끊고, 문을 꼭꼭 걸어 잠가도 흑사병의 침입을 방지하지 못했다. 몸속에 페스트균을 보유한 벼룩을 태우고 쥐는 어디든지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약 1 mm 길이의 실같이 생긴 소나무재선충(Bursaphelochus xylophilus)이 원인이 된다. 소나무에 침입한 선충은 급속도로 증식하여 나무의 물관을 막아버린다. 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당해년도 80%, 다음 해나마지 20%가 고사한다. 소나무재선충은 스스로 이동능력이 없다. 전파되려면 반드시 흑사병의 쥐-벼룩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딱정벌레목에 속한 솔수염하늘소라고 하는 곤충이 매개체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치사율이 100%라는 점은 에이즈와 같다. 하지만, 감염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과 가공할 만한 빠른 전파능력은 흑사병의 속성에 더 가깝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솔수염하늘소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초기 박멸에 실패하면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 왜 그 것을 간과(看過)했을까? 솔수염하늘소가 나오지 못하도록 고사된 소나무의 벌목과 훈증처리, 내년에는 대대적인 항공방제 살충제가 기다리고 있

을 것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905년 일본에서 처음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생되었다. 일본에서 수입한 화물의 포장재로 쓰인 소나무 목재 속에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솔수염하늘소가 들어 있었다. 제주에서 첫 발생은 2004년 오동동에서 발견되었다. 육지에서 드려온 건축자재용 목재를 통하여 솔수염하늘소가 침입한 것이다.

이제 제주도에서도 어디서나 빨갛게 말라 죽어가는 소나무들을 너무도 쉽게 볼 수 있다. 천연경관이 최고의 자산인 제주도에 가슴이 아픈 일이다. 일본에서는 642백만 ha, 중국에서는 700백만 ha 면적의 소나무가 피해를 받았다. 일본 구마모토에서는 소나무가 모두 사라졌다. 제주도 소나무 5만 그루가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되어 고사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내년 봄까지는 15만 그루가 고사될 것이라고 한다. 생각만 해도 꿈 같다.

기만히 눈을 감고 소나무가 사라진 제주의 산과 들을 생각해보자. 그 모습이 아름다운가? 아니면 공포스러운가? 기만히 눈을 감고 현재 자신의 모습에 미래의 나를 겹쳐서 보자. 행복한가? 공포스러운가?

제주도에서도 어디서나 빨갛게 말라 죽어가는 소나무들을 쉽게 볼 수 있어 천연경관이 최고 자산인 제주도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다

”

독자기고

달콤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 사회를



사당오락(四當五落), 얼핏 들어서는 무슨 게임 이름인가 싶기도 한 이 단어는 '네 시간 자면 대학 입시에 성공하고 다섯 시간 자면 떨어진다'의 뜻을 가진 말이다. 그리고 2013년,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당오락을 넘은 '삼당사락(三當四落)', 세 시간을 자면 성공하고 네 시간을 자면 실패한다'고 압박을 주고 있다. 잠이 많은 나는 다섯 시간을 자는 것도 서러운데 세 시간을 자야 성공한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다.

며칠 전 신문에서 '초등학교 6학년 김OO양의 병학스케줄' 이란 기사를 읽었다. 오전 6시, 눈을 뜨고 동시에 운동 100 영어 강습 시작, 밤 12시에 논술 대비 독서를 하며 잠자리에 드는 김양의 시간표는 가히 '살인적'이라 표현해야 익을 듯 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하루에 6시간 이상을 절대 재우지 않는다고 자랑스러워하는데 소름이 끊었다.

그 외에도 인터넷이나 TV를 잠깐만 들려보아도 '잠'을 줄여야 성공한다고 떠들어 대는 광고와 기사들. 내 어린 시절에는 아무런 걱정 없이 TV에서 나오는 로봇들을 보며 즐거워했는데, 어느새 사회는 초등학생에게도 잠을 줄여라 권하고 있다.

비단 초등학생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중학생에게 성공적인 고입을, 고등학생에게는 성공적인 대학 입시를 요구한다. 대학생에게 성공적인 취업을, 직장인에게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요구하니까.

면 중년에게는 성공적인 노후대비와 자녀들을 위한 보험을 마련하고 권한다. 그리고 그 뒤를 매설계 키아오는 '잠을 줄여야 한다'는 말. 우리는 과연 언제쯤 잠을 잘 수 있을까?

시계바늘을 잠시 뒤로 돌려보면, 과거 서양이나 우리나라에 가혹한 형벌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뭐니 뭐니 해도 '잠'을 못 자게 하는 형벌이 수많은 형벌 중 당연 으뜸이라 칭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국민들에게 형벌을 내리고 있는 것일까. 아이러니하게도, 잠을 편하게 자고자 우리 인간은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이유로 잠을 못자고 있는 상황이다.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의 주인공 파우스트에게 결국 필요한건 그가 문털 6피트의 땅이었다." 어느 유명 만화가의 말이다.

많은 것을 유희로 한 번에 취하려 한들, 우리는 결국 자그마한 땅 몇 평과 함께 간다. 나는 우리 사회가 이제 다시 '잠'에 들어갈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잠의 사전적 의미를 잠시 빌려오면 '눈이 감긴 채 의식 활동이 쉬는 상태', '생물이 깨어있을 때 손상된 부분을 재생하고자 이루는 행위' 등이 있다. '잠' 시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의 손상된 마음과 의식을 모두 쉬도록 하자.

닿을 듯 닿지 않는 오아시스를 향해 달려온 그대로, 받아쓰기 시험 100점을 위해 달려온 꼬마아이도, A+ 학점을 위해 달리는 우리 대학생들도 잠시 만 쉬어가자. 요즘 한창 핫이슈로 떠오르는 노래 제목이 '24시간이 모자라'의 일 겉 보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결국 몇 시간의 달콤한 수면시간이 아닐까.

학생자치기구 선거 점검

» 총대의원회 - 우선순위 선거운동본부

“총회·감사·선거 등 본연의 책무 철저히 이행할 터”

실질적 공약 통해 조직 활성화 기대

▶ 출마동기는

“올해 '길라잡이' 총대의원회 감사국장을 맡아 대의원 활동을 시작했다. 감사활동을 통해 총대의원회는 모두를 위한 기준을 잡는 기구라는 점에 매력을 느꼈다. 이제는 감사국장을 넘어 의장으로서 총대의원회를 이끌고 싶어 후보로서 출마했다.”

▶ 슬로건으로 내건 '우선순위'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꿈과 목표가 있다. 꿈과 목표를 이루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들이 있다. 학과대표뿐만 아니라 일만 아파 학우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움이 되겠다는 의미로 '우선순위'라는 이름을 정했다.”

▶ 입후보자가 생각하는 총대의원회의 역할

“총대의원회의 역할은 많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총회, 감사, 선거다. 우선 총회는 학과대표들의 의결을 통해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대의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준다. 감사는 각 기구간의 견제를 통해 서로가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선거는 잘못된 선거문화를 개선시키는 것과 비용 절감 등에 신경쓰는 것이 총대의원회의 역할이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총대의원회는 결국 모든 것의 '기준점'을 잡아준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 역대 총대의원회를 바라보며 느낀 점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총대의원회는 자그마한 조직이었다. 각 단과대학에 대의원회를 구성, 총대의원회라는 이름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과감사의 체계를 명확히 하고 상임위원회의 역할을 확장시켜 나갔다. 역대 의장들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만아라 학우들을 위해 노력했다. 우리 역시 그들의 뒤를 이어 총대의원회를 이끌고 싶다.”

▶ '우선순위'의 주요 공약은

“우선순위는 학과대표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허황된 공약보다는 실질적으로 학과대표들을 위한, 더 나아가 일만아라 학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약과 정책을 준비했

다. 먼저 각 단과대학 대의원실에 복합기를 설치해 학과대표들의 인쇄비 부담과 밀린 과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두 번째는 Volunteer & I make a Plan 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과대표들의 참여를 통해 기획하는 봉사활동을 말한다. 총대의원회가 후원하고 학과대표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리더십 배양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외에도 기존 총대의원회가 진행했던 맘사내컵, 할인 혜택 등을 유지하도록 하겠다.”

▶ 감사평가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감사평가를 총대의원회만의 의견만 내세워 몰아붙이면 대의원회는 일부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로 남게 된다. 총대의원회는 일만아라 학우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이다. 그러므로 중앙운영위나 상임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감사평가를 진행도록 할 생각이다.”

▶ 대의원총회 진행시, 학과대표들의 인준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는 의견이 있다.

“민감한 사항이지만 이는 제도적 차원에

차이라고 생각한다. 학과대표는 자신의 학과와 학년 모두의 의견을 대표로 말하고자 선출된 자리이다. 그런 학과대표를 위해 대의원회는 회의에서 밸의권 등 여러 가지 권한을 제공한다.”

이런 제도적 장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의견을 말하지 않는 학과대표는 본인의 책임감을 넘어 학과 전체의 일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대의원회에서도 보다 폭넓은 제도적 장치와 함께 학과대표들의 의식을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 총대의원회를 잘 모르는 학우들이 많다. 총대의원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할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SNS(페이스북, 트위터)나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홍보 효과가 높을 것이다. 또 온라인상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현수막이나 포스터 부착을 통해 총대의원회의 행사를 알릴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총대의원회를 홍보해 나가겠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과대표

▶ 제30대 총대의원회 선거에 단선으로 출마한 '우선순위' 팀

정후보자 고명찬(수학과 3. 원쪽)씨와 부후보자 고현우(수산생명학전공 3. 쪽)



제30대 총대의원회 선거에 단선으로 출마한 '우선순위' 팀. 정후보자 고명찬(수학과 3. 원쪽)씨와 부후보자 고현우(수산생명학전공 3. 쪽).

▶ 주요 공약

- ▷ 학과대표 경력사항 기재
- ▷ 각 단과대학 대의원실 복합기 설치
- ▷ Volunteer & I make a Plan
- ▷ 모바일 홈페이지 개설
- ▷ 휴대폰 급속충전기 설치
- ▷ 시험기간 세면도구 지급
- ▷ 학과대표 할인 혜택
- ▷ 단대 감사 및 학과 감사 기준 확립
- ▷ 공정한 선거 통해 선거 비용 감소

강수빈 기자

동문칼럼

아라별과의 인연을 되새기다

교사의 길을 천직으로 알고 30년 동안 중등수학을 가르치다 올해 9월 영광스럽게 초임 교감으로 제주대학교 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향인 제주에서 초·중·고를 보내고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졸업하여 교육교사가 되고, 교감으로 승진하여 모교와 인연을 이어가니 참으로 저는 운이 좋은 제주대 사대부고 교감입니다.



문영봉

대학을 졸업한 후 교직 생활의 부침이 있을 때마다 나를 이끌어 주신 존경하는 교수님, 동문님들이 있어 항상 행복합니다. 그리고 교직에 있으면서 교사의 전문성과 수학을 더 배우고 싶은 마음에 석사와 박사학위도 제주대학교에서 취득하였습니다. 저에게 아라별은 청년기의 꿈과 성년, 장년기의 힘을 함께 심어주고 끌어준 멘토라 할 수 있습니다.

저가 다닌 시절의 국립사범대는 졸업하면 교사가 보장되었기에 졸업 후 직장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학업을 소홀히 할까 염려가 되어 수학교육과 교수님들의 학점은 유급을 시킬 정도로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전공책을 들고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즈음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고 심지어 성형까지 하는 취업 대란을 겪는 것을 보면 무척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세대는 풍족하지 않지만 소소한 행복을 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4년 근무하고 고등학교에서 지난 8월까지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주시내 일반계 고등학교, 과학교까지 다양한 학생들과 만나면서 학생 수준에 맞는 교수법으로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바탕은 대학에서의 훌륭한 교수님들의 지도가 있었고, 동료 선생님들과의 연구와 협력이 있었기에 굽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두난히 교사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문제를 함께 해결할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합니다.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끌어주는 역할을 지금 생각해보면 서로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했다는 깨달음으로 다가와 기쁨이 풍물해집니다. 내가 그 순간들을 충실히 잘했는지를 묻는다면 잠시 자신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지난 여름은 유독 길었습니다. 너무 덥고 가뭄이 지속되어 가을이 오지 않을 것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느닷없이 서늘한 바람이 불었고 이제 단풍 소식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씨늘한 공기가 겨울을 접어드는 밤길음을 재촉하는 듯합니다. 제가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보낸 시간들도 순차적으로 흘러가서 이제는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닌 교감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교감이 되고 가장 아색한 것은 교감실이라는 공간에서 결재하려 오시는 선생님들과의 만남입니다. 두 달이 지나가니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내가 있을 것을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실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최고의 선생님은 정년까지 수업하면서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감으로 일하는 지금의 역할에 충실히 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이 순간까지 저를 이끌어온 바탕은 제주대학교 아라별이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제주대학교 학생 여러분! 저에게는 여러분만한 자녀가 있어 후배이자 자식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불러봅니다. 긴 세월이 지나면 대학시절에 행한 일들이 내 삶에 초석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대학시절은 인생에서 가장 값진 짧음의 시간들로 채워집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바라는 분야에 마음껏 도전하는 시간들로 대학생활을 채우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꿈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총학생회” 등록금 환원률 증대시켜 학생 혜택 늘릴 것



제46대 총학생회 선거에 나선 '하영Dream' 선거운동본부 정입후보자 원일권(영어영문학과 4, 왼쪽)씨와 부입후보자 안진호(경제학과 4)씨.

▶ 출마 동기.

“정후보자는 영어영문학과 회장과 인문대학 회장을 역임했다. 부후보자는 경제학과 회장, 경상대학 회장을 맡았다.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의 복지와 권익 신장에 힘썼다. 두 후보자 모두 회장을 지내면서 학과 및 단과대학 운영을 잘했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다. 더 나아가 제주대 학생 전체를 대표하는 총학생회 일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돼 출마를 결정했다.”

▶ '하영Dream' 슬로건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슬로건의 부제는 ‘일만 개의 꿈, 그 꿈을 향한 우리들의 Dream’이다. 학생들은 대학교에 와서도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있다.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사고를 하고 있는데 교육방식은 획일적이다. 우리는 학생 개개인이 갖고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는 총학생회가 되고자 이와 같은 슬로건을 내걸었다.”

▶ 이번 총학생회에게 아쉬운 점.

“올해 아라체전을 진행하면서 한 학생이 다친 적이 있었다. 이때 앰뷸런스가 늦게 오는 등 사후 대처가 아쉬웠다. 행사가 진행될 때 안전이 최우선인데 이 부분에서 미흡했을 것 같다. 우리는 행사를 진행할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 총학생회 힘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는 무엇이 있다고 보나.

“총학생회의 권위를 낮추는 것이다. 총학생회실이 3층에 있는데 총학생회실에만 상주하는 것은 잘못됐다. 학생들이 행사 등을 제외하면 총학생회를 접하기 힘든 것처럼이다. 학생회관 1층으로 먼저 내려와 학생들에게 총학생회가 하는 일을 알릴 계획이다. 또 학생들이 총학생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해결하고자 노력해,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총학생회를 만들겠다.”

▶ 중점적으로 추진할 공약은.

“먼저 드림센터가 있다. 학생회관 내 대형부스를 설치해 총학생회 산하 복지위원회를 상주시킬 생각이다. 이곳에서 멘토링, 상시책장터, 주간지 비치 등을 할 생각이다.”

두 번째는 캠핑 페스티벌이다. 현재까지 대학의 3주제인 학생, 교수, 직원이 모여 진행하는 축제가 없었다. 대학의 주체가 모여 행사를 연다면 교직원들도 총학생회와 학생들에 대해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학생들

도 교직원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캠핑 페스티벌을 통해 제주대의 모든 구성원들을 화합하는 장을 만들겠다.

다음으로 제주 유나이티드 연계 교양 수업을 만들 생각이다. 제주 유나이티드 경기 를 보려 가면 애ه심도 느낄 수 있고 제주대 학생이 문화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리라 본다. 또 우리 학교의 교양 수업은 배드민턴이나 골프 등 몇몇 교양을 제외하면 획일화돼 있다. 제주 유나이티드 연계 교양 수업을 통해 강의의 틀을 벗어날 수 있다고 기대한다.”

▶ 등록금 환원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

“등록금 환원률은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 중 적절적으로 교육활동에 쓰이는 지급률을 말한다. 여기에는 국가장학금이나 외부장학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3년 동안 등록금이 등록금과 인하됐지만 정작 학생들의 혜택은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학과에서 지급하던 B급 장학금이 없어졌다. 그래서 학생들의 혜택을 높이기 위해 등록금 환원률을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학생들이 알아야 할 혜택까지 고려해 환원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 평의회 의결권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가.

“평의회에서 학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의결권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학생들과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한 의결권은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

어떤 사람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어설픈 지식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 버리면 학교 발전에 저해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그 부분을 감수하고 평의회 모든 부분의 의결권을 따야 된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기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

▶ 예전 총학생회 출마자들보다 공약들이 지킬 가능성이 높지만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책은 후보자들이 학생들에게 말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학생회가 내건 공약은 기본적으로 다 지키고 학생회가 진행하는 다른 일들에 더 충실히 한다. 공약을 못 지키는 총학생회가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최소한으로 지킬 수 있는 것들을 담았다. 지키

정·원일권
부·안진호

“
학생회관 내 드림센터 설치해
멘토링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교수·학생·직원이 함께하는
캠핑 페스티벌 행사 개최

”

제46대 총학생회 선거에 나선 '하영Dream' 선거운동본부 정입후보자 원일권(영어영문학과 4, 왼쪽)씨와 부입후보자 안진호(경제학과 4)씨.

기 힘든 임팩트 있는 공약을 내지는 것은 자질 문제가 있다.

또한 이는 일만 아라를 위한 총학생회가 아닌 후보자를 위한 총학생회가 될 우려가 있다. 그렇기에 후보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우리들은 학과, 단과대학 회장을 하면서 내건 공약들을 모두 지켰다. 총학생회가 돼서도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 대동제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대동제 문화는 주제과 연예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어 아쉽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축제 전담팀을 만들겠다. 축제전담팀은 유니브엑스포를 모티브로 생각했다. 유니브엑스포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기획단을 조직해 진행했다. 당선이 된다면 임기 시작과 함께 축제전담팀을 꾸려 5~6개월 간 준비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참신한 기획을 만들고자 한다.”

▶ 등록금 환원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

“등록금 환원률은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 중 적절적으로 교육활동에 쓰이는 지급률을 말한다. 여기에는 국가장학금이나 외부장학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3년 동안 등록금이 등록금과 인하됐지만 정작 학생들의 혜택은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학과에서 지급하던 B급 장학금이 없어졌다. 그래서 학생들의 혜택을 높이기 위해 등록금 환원률을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학생들이 알아야 할 혜택까지 고려해 환원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 평의회 의결권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가.

“평의회에서 학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의결권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학생들과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한 의결권은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

어떤 사람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어설픈 지식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 버리면 학교 발전에 저해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그 부분을 감수하고 평의회 모든 부분의 의결권을 따야 된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기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

▶ 예전 총학생회 출마자들보다 공약들이 지킬 가능성이 높지만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책은 후보자들이 학생들에게 말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학생회가 내건 공약은 기본적으로 다 지키고 학생회가 진행하는 다른 일들에 더 충실히 한다. 공약을 못 지키는 총학생회가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최

김동현 기자

주요 공약

- ▷ Dream Center 설치
- ▷ Dream Mento제 실시
- ▷ Book sharing
- ▷ 대학생 주간지 비치
- ▷ 등록금 환원률 증가
- ▷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 ▷ 기성회비 납부 문제 해결
- ▷ 대학발전협의회 신설
- ▷ 평의회 학생 의결권 확득
- ▷ I see Dream 총학생회 평가제
- ▷ 투명한 학생회
- ▷ 아리대동제 축제 준비 전담팀 구성
- ▷ 아리대동제 학군단 퍼레이드
- ▷ 아리 캠핑 페스티벌
- ▷ 그린캠퍼스 협의회 가입
- ▷ 제주유나이티드 연계 학점이수 수업 신설
- ▷ 4·3 수업 P/F 평가
- ▷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 활성화
- ▷ 계절학기 수요조사 활성화

- ▷ 스터디룸 확보
- ▷ 코이카 해외봉사단 & 아라 해외봉사단 인원 증대
- ▷ Dream Road 조성
- ▷ 학생회관, 제2도서관에 동전&지폐 교환기 설치
- ▷ 단과대학 전산실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 ▷ 무인 복사카드 발급기
- ▷ 대운동장 계단 설치
- ▷ 제2운동장 뜬살장 'Dream Field' 학생 이용 보장
- ▷ 학내 야광 반사경 설치
- ▷ 라면자판기 추가 설치
- ▷ 학생회관 및 제2도서관에 도서 반납기 설치
- ▷ 캠퍼스 전역에 쓰레기통 추가 비치
- ▷ 경상대 인문대 오르막길에 미끄럼방지 패드 설치
- ▷ 순환버스 노선 변경
- ▷ 스마트폰 충전기 아라홀, 한라카페테리아에 설치
- ▷ 디지털 도서관 신축과 체육관 리모델링
- ▷ 기숙사 식사비용 비율제

- ▷ 기숙사비 카드납부 범위 확대
- ▷ 기숙사 출입시간 일괄 2시 통일
- ▷ '다모아' 후문정보 개시판 신설
- ▷ 외국인을 위한 서포터제
- ▷ 아리체전 외국인 참여
- ▷ 장애학우 이동로 보완 및 설치
- ▷ 노트북, 패드 대여 시스템
- ▷ 학생회관 식당 메뉴 다양화
- ▷ 일만 아라 Dream 지원금
- ▷ 총학생회 홈페이지 활성화
- ▷ 물품 대여 사업
- ▷ 아리홀, 한라홀 시험기간 연장 개방
- ▷ 위험지역 가로등 추가설치
- ▷ Dream 스티커
- ▷ 제휴업체 알림판
- ▷ 단과대학 주요사항 중앙운영위원회 공동 논의
- ▷ 지역 현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
- ▷ 신제주권-제주대 직행버스 노선 개설
- ▷ 5·16버스 막차 시간 연장



“본래 취지인 참된 의미의 ‘진짜’ 총학생회” 평의회 의결권 등 학생 목소리 담는 민주적 제도 도입



제46대 총학생회 선거에 나선 '진짜' 선거운동본부 정입후보자 고광표(경영학과 4, 왼쪽)씨와 부입후보자 김무송(법학과 3)씨.

정·고광표
부·김무송

“
제주대 동문과 함께하는
디어[dir] 아라장학금 신설
취업전략본부와 연계한
맞춤형 취업컨설팅 도입

”

일방적으로 사업을 하고 또 4년간 내는 등록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의결권은 한 표일지라도 학생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이뤄야 할 것이다.”

▶ 예전 총학생회 출마자들보다 공약들이 지킬 가능성은 높지만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2006년도부터 출마한 총학생회의 공약을 살펴봤는데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 많았다. 총학생회는 약속을 지키는 곳이지 말로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리는 그릇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총학생회가 정말 지킬 수 있고 시행할 수 있는 공약 위주로 진행하고 싶었다.”

▶ 대동제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3일 동안 만큼은 많은 학생들이 대동제에 참여하고 제주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민족들도 참여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연예인 섭외와 무대 설치 등 축제에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 야외공연장 신축을 통해 향후 축제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지금 당장 효과를 보긴 어렵지만 앞으로 무대 설치 등의 축제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다.”

▶ 공정회는 학교의 각 쳐부의 전반적 사업 계획이나 집행 내역에 대해 일반 학우나 학부모 등이 참석할 수 있는 자리를 가져 학교를 높이려 노력하는 드림센터를 예상하고 있다. REAL PLAN은 취업전략본부와 연계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년별로 일정 기간 동안 컨설팅을 통해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고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돋는 것이다.”

▶ 학생들에게 맞춤형 취업컨설팅이 필요하다. 학생 각자가 어떤 것을 하고 싶고, 적성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즉 막연하게 학점이나 토의 점수를 높이려 노력하는데, REAL PLAN은 제주대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해석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 생각한다.”

▶ ‘진짜’ 슬로건의 의미는 무엇인가.

“총학생회가 학우들에게 많은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이다. 불신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학생들에게 본래 취지대로 참된 의미의 진짜 학생회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하지만 ‘진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 이번 총학생회에 아쉬운 점.

“정책을 70% 이상 이행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2학기 들어 사업 추진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웠다. 정책은 학생들이 정말 원하고 또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좋은일만 총학생회가 실현하지 못했던 공약 중 좋은 부분을 인수인계 받아 실천하려고 한다.”

▶ 총학생회의 힘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한 문제는 무엇이 있다고 보나.

“앞서 설명했지만 학생들의 목소리를 높여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후생복지기금은 등록금의 2%이지 만 집행 결과를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제도로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학교 사업비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등록금이 어떻게 계획되고 집행되는지 알 수 없다. 학교에도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는 민주적 절차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것이 ‘진짜’ 선거운동본부의 가장 큰 목표다.”

▶ 중점적으로 추진할 공약은.

“이번 좋은일만 총학생회와 총장님과의 대화에서 평의회 의결권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의

- ▷ 서귀포버스 야간 연장 운행
- ▷ 계절학기 순환버스 운행
- ▷ 등/하교 시간 버스 늘리기
- ▷ 신제주-제주대 연복로 노선 신설 추진
- ▷ 취업자 대상 이러닝 개설 확대
- ▷ 수강신청 시스템 개선(모의수강신청 시스템)
- ▷ 필수교양 이리닝으로 추가 개설
- ▷ 강의평가 시스템 및 결과내용 개선
- ▷ 강의계획서 개선 및 의무화
- ▷ 학생회관 식당(백두관) 가격 2년간 동결
- ▷ 생활조합원증 발급 및 할인혜택 추진
- ▷ 시험기간 대점(한라홀, 아라홀 등) 야간 운영 추진
- ▷ 경대 급경사 계단 설치
- ▷ 폭풍의언덕 미끄럼방지 설치
- ▷ 산천단 다리정비
- ▷ 종합분실물 및 물품보관 센터
- ▷ 위험지역 가로등 소등시간 연장
- ▷ 헌책방 운영

- ▷ 정문 비가림막 리모델링 및 교내 추가설치
- ▷ 무빙워크
- ▷ 기숙사 입주 장학금
- ▷ 원룸 및 자취방 정보 개선
- ▷ 중앙도서관 및 제2도서관 사물함 추가배치
- ▷ 휴대폰 급속충전기 설치
- ▷ 중앙도서관 책반침대 설치
- ▷ 제2도서관 휴게실 건축사업 추진 촉구
- ▷ 중앙도서관 휴게실 매점 설치
- ▷ 야외음악당 재건축
- ▷ 월드컵축제
- ▷ 유학생 학생회실 이전(학생회관 지하→ 학생회관 3층)
- ▷ 유학생 장학금 선정 기준 완화 (2.7+Topik 4급→ 2.4+Topik 4급)
- ▷ 장애학우 총학생회의 침정권 부여
- ▷ 장애인지원센터 전문직원 채용
- ▷ 4·3의 날
- ▷ 4·3 대통령 방문 요구